

㉔ 북한산 내시묘역길

그리고 흥국사



1300년전 원효 스님이 창건한 흥국사 약사전에는 약사여래가 약합을 들고 아픈 중생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와 앉은 불자 한 분이 약사부처님과 한참을 앉아 있다.

약사여래 모신 흥국사는 아픈 중생 '위로' 도량

태풍이 연이어 지나갔다. 많은 것들이 망가졌다. 멀리서, 가까이에서, 집이 망가졌고, 길이 망가졌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 태풍은 지나갔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 태풍이 지나간 자리엔 차가운 비가 내렸고, 차가운 비가 지나간 자리엔 코스모스가 피었다. 위로는 그런 것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가 내리고, 비 내린 자리에 가을꽃이 피는. 우리 삶에 위로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 그 것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차가워진 길을 걷는 것뿐이었다. 북한산 둘레길 10구간 내시묘역길이다. 그리고 그길 옆에는 흥국사가 있다.

개울길, 아스팔트길 다양한 길 걸어
내시묘역, 여거소서 등 사연 있는 길
찬비 지나간 자리에 코스모스 피네

문 앞에서 듣는 그들의 소리는 4악장이다. 차가운 길 위에서 듣는 뜨거운 4악장이다. 풀벌레소리 사이사이로 참새들이 어찌렇게 들락거린다. 호박밭을 열렁거려다 깨밭을 휘젓고 날아간다. 이집 저집 대문도 창문도 의미 없다. 가을이 끝나고 따라오던 숲도 끝난다. 풀벌레 소리도 멀어진다. 이정표(둘레길)를 따라 약 1km 쯤 걸으면 주박가 길로 접어들다. 등성들 성 숲 속의 집들이 보이고, 다시 작은 개울과 산이 다가온다. 멀리 북한산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200m 쯤 걸으면 여거소서(汝其沼) 터가 나온다. 조선 숙종 때 북한산성 축성에 동원된 관리를 만나러 먼 시골에서 온 기생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다. 너(汝)의 그 사랑(其)이 잠긴 못(沼), 여거소서 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경로당이 들어서 있다. 100m 쯤 걸으면 백호사란 절이 있고, 그 뒤편이 내시묘역이다. 하지만 그들의 묘는 없다. 묘역이 있던 자리는 개인 소유의 땅이 되었고, 묘는 모두 없어졌다. 다시 100m 쯤 걸으면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된다. 내시묘역길은 난간로 정리의 개울길과 크고 작은 텃밭들이 늘어진 흙길과 아스팔트길 그리고 산 속의 숲길까지 다양한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지루하지 않은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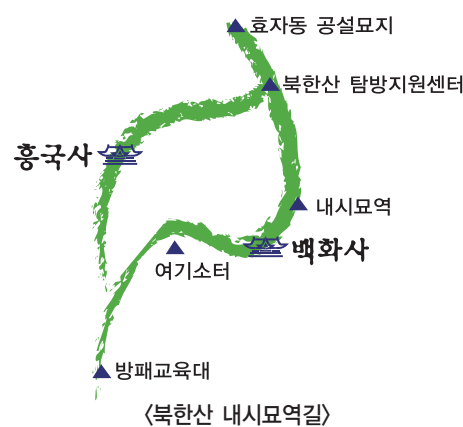
흥국사는 내시묘역길에 없다. 흥국사는 북한산과 마주한 노고산에 있다. 5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 쪽은 북한산이고 한 쪽은 노고산이다. 위에서 말한 둘레길을 걷다가 개울이 끝나는 지점(이정표가 나온 다)에서 둘레길을 버리고 5차선 도로를 따라 1km 쯤 걸으면 흥국사 입구다. 길가에 큰 표지석이 있다. 거기서 약 600m 쯤 올라가면 흥국사다. 나팔꽃, 구절초, 코스모스, 가을꽃들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와 여름이 지나간 자리를 위로하고 있다. 절어가는 숲길 끝에 일주문이 서있다. 흥국사는 661년(문무왕 1)에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북한산 원효암에서 수행 중이었던 스님은 어느 날, 북서쪽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산을 내려와 흥국사 자리에 이르러 왔고, 서기(瑞氣)를 받고 계신 약사여래를 보신 스님은 인연도량이라 생각하여 본전에 약사여래를 모시고 흥성암(興聖庵)이라 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전해 오는 것이 별로 없다. 1770년 (영조 46)에 영조가 절에 하루 머물게 되고 이후로 왕실의 원찰이 된다.

도량은 불사로 인해 조금 어수선하다. 마당엔 여름도 가을도 없다. 중장비 한 대가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무엇 때문인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복구'가 필요하다. '복구'도 일종의 위로였다. 설법전을 지나 본전인 약사전에 들었다. 무릎 꿇고 약사여래의 약사발을 바라보니, 이 곳 저 곳 아픈 곳이 없다. 먼저 와 앉은 불자 한 분도 약사부처님과

한참을 앉아있다. 맞은 편 설법전에는 극락구품도가 있다. 극락세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약사전에 나와 설법전으로 갔다. 극락이 있었다. 약사여래의 약사발이 그냥 약사발은 아니었다. 흥국사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하다. 몇 해 전, 흥국사에서 쉽지 않은 템플스테이가 있었다. 이스라엘 대학생과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이 함께한 템플스테이였다. 서로의 목숨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두 민족의 대학생들이 한국 땅 흥국사 마당에서 연등을 밝히고 물랐던 손을 마주잡던 그 밤이 생각났다. 그 때도 가을이 오고 있었던 것 같다. 흥국사는 최근 이색 템플스테이 '싱글파티 만남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약사발을 든 약사여래가 있고, 극락구품도가 걸려있는 흥국사엔 '위로'가 있었다. 흥국사에도 태풍이 지나갔을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여전히 흥국사는 사바를 위로하고 있었다.



흥국사 약사전 약사여래



(북한산 내시묘역길)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훤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훤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토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훤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격: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 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안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는데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령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시방, 가든, 위령전,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마운선,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호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관,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세서고 위험사업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